

## 2) 순천중·고등학교

고 우석 김종익의 기부로 설립된 순천중학교는 1938년 3월 순천공립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은 후,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5년 과정의 순천공립중학교로 개칭하여 1938년 4월 30일 개교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제국주의의 야욕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조선을 그들의 군사 병참기지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전시체제하에서의 학교교육은 모든 학교에 현역장교를 배속하여 교련·체조·무도 과목을 상설화하는 등 철저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회 때의 열병·분열은 물론 전교생의 검도·유도 실시, 체육대회의 기마전·장대높이기·단축마라톤(학교~대대, 왕복 10km), 체력검정 등 일제의 군사교육에 따른 제반 행사가 행해졌다.

학교체육 또한 전시에 대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검도·육상·체조·승마 등 기초체력 단련 및 정신교육 강화 위주로 되었다. 1940년 마쓰무라(1940~1945년 재직)라는 체육교사가 부임하여 육상·체조 등 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의 성실한 지도로 1940년대 중반 순중 육상은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1942년에는 광주서중에서 행해진 조선신관봉찬 전남예선에서 광주서중·광주농업·목포상업을 물리치고 1위를 하여 서울에서 실시된 전조선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였다.

교내 체육대회는 개교기념일과 가을철 대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개교기념일에는 전교생 단축마라톤대회(학교~대대, 학교~오리정, 왕복 10km)를 실시했으며, 가을철 대회는 학부모를 초빙하여 성대히 치렀다. 정상보행진, 기계체조, 기마전, 장대높이기, 전시소방대회훈련 릴레이 등을 홍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편 사제시간의 정을 나누는 사제경주도 있었다.

1951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된 교육법에 따라 6년제 중학교가 9월 1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분리되어 현재 학제로 실시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침체되었던 모든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순천에 영·호남 축구대회의 부활과 배구, 육상경기대회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순천중·고 동창회 주축로 영·호남 배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배구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육상·축구·체조·배드민턴·양궁·핸드볼 등의 체육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배드민턴과 양궁은 10여 년간 전국을 석권하며 많은 대표선수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순천고등학교의 육상은 1952년 6월 광주에서 열린 전남학도호국단 주최 육상경기대회에서 스파이크도 없이 출전한 안영옥·김기채 선수가 예선 각 조에서 1위를 차지하여 전남 육상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후에는 많은 선수가 활동하였지만 전국 규모 대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1983년 이남규 교사가 부임하여 이듬해 육상부를 창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방법으로 순고의 육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역·전남대회를 석권하였다. 1986년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종대 선수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987년에는 주지열 선수가 제15회 KBS 전국육상경기대회 1500m 장애물경기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배구는 1950년대 중반 이근호에 의해서 9인제 극동식 배구팀이 창단된 후 매년 순천에서 개최되는 순천중·고 동창회 배구대회와 순천사범학교 주최 배구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1960년대 초반 순중 졸업생이 순고에 진학하면서 팀의 전력이 보강되어 전남대표로 선발, 제42회 전국체전에서 전국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1965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팀이 해체되는 비운을 맞았다.

순고 출신으로 배구선수로 대학에 진학한 유일한 선수는 최종옥 선수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공격수로서 활약하였으며, 1980년대 여자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하였다. 당시 배구선수의 명단은 기길중·장간보·임병현·이한우·장봉안·조경석·유정명·최종옥·신계식·임정현·허성구·고범석·서경국·서충석·서홍석·김혁중·정병모·최기선·주형은·권정현·박화덕·조수영·허여량·노정권·박홍표·서태원 등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축구는 순고와 순농의 라이벌 대결이 모든 순천시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당시 순중의 주전선수들은 김홍주·이성호·최대한·이대순·박중량·양해룡·조문호·염학섭·김종옥·손재홍·고제안·윤용기·이영모·이근태 등이다. 1950년대에는 순천사범·순천농업학교·은성고(현 매산고) 등의 축구실력이 백중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며 각 팀의 응원도 치열하였다. 그당시 활약했던 선수는 서영수·장세규·신근재·황일룡·장종암·진봉수·김길중·장영준·최백운·김복남·정재완·김유용 등이다.

순중은 1959년 호남축구대회 우승을 비롯, 전남학도호국단 축구대회 및 영·호남 축구대회의 우승을 1961년까지 독차지하였다. 이때 지도는 이경호 교사가 맡았으며, 선수로는 이장국·윤영수·정재경·정홍치·송영소·서인석·강영남·이태호·신광일·한광원·박화덕·김혁중·최기선·허여량·조영진 등이었다. 고등학교팀은 장간보·윤득선·이세권·박성가 등이 주축이 되었다. 그후 1983년 축구부가 재창단되어 최기영·문창곤·김형곤 교사 등이 감독으로 이어지면서 열심히 전술과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형성에 목적을 두고 유도를 정규학습 과정에 포함시켰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을 갖춘 유도장을 강당에 만들고 전교생으로 하여금 유도를 수련케 하고 2급 이상의 실력을 갖도록 했다. 1956년부터 1962년까지 활약했던 유도선수로 서태석·오민기·김성규·이용식·유용선·채기채·정재한·강영남·김순곤 등이다. 순고의 배드민턴부는 1964년 김병옥 교사에 의하여 창단되었다. 창단 2년 만에 전남 고등부를 석권, 전남대표로 제46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그후 매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 및 준우승만도 7회, 국제대회에 한국대표 선수로 9회 출전하여 화려한 전적을 남기며 많은 대표선수를 배출하였으나, 1974년 해체되었다. 그때 활약했던 선수는 박기현·노정권·김봉섭·강일승·윤수·윤기호·조영옥 등이며 특히 노정권은 국가대표팀 코치로, 김봉섭은 국가대표팀 코치를 거쳐 경기 해설자로, 박기현은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근무하며 배드민턴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양궁은 1973년 4월 1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김병옥 교사의 지도로 팀을 창단하였다. 7개월 만에 전남대회를 석권하고 제54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 도대표로 출전하였다. 전국체육대회 출전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은 교사와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기록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훈련한 결과, 11월에 열린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에서 이기식 선수가 30m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창단 1년도 되지 않아 양궁의 명성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1974년에는 한정안·이기식 선수가 제21회 올림픽 2차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한국신기록을 경신하였다. 9월에도 이기식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개인 싱글라운드 1위, 70m 1위(한국신기록)로 한국인으로는 처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렇게 순고 양궁은 각종 대회마다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등 기록을 경신하는 팀으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김영운은 한국대표 선수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양궁대회에 출전하여 5관왕에 오르면서 한국신기록 2,544점보다 36점, 세계신기록보다 9점이 더 많은 2,580점을 얻어 개인종합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30m 더블 경기에서도 705점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여, 순천의 명예와 한국 양궁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2년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1위, 남고부 개인전 2위를 차지하였다. 이때 활약한 선수는 이기식·김호중·한정안·윤종찬·김영태·김범진·장영술·김윤식·신남식·윤병태·최순동·곽석환·김영운·안태성·민웅기·김영봉·이웅·김회영·허중·양시중·박종연·이승구·선선주·하용수·방진욱·김남희 등이다.